

연중 제11주일

기도서 371면 (다해)

제1독서 : II사무 12, 7-10, 13

제2독서 : 갈 라 2, 16, 19-21

복 음 : 루 가 7, 36-8, 3

순정이

“잘 들어 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루가 8, 47).

강론

소리

용서의 첫 걸음

박 찬길 신부/진안 전주교회

“국회 고발”

어느 심리학자는 자신의 과오를 쉽게 시인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모습들을 고백소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용서와 자비로써 당신의 권능을 크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떨어질 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에 죽음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가까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용서를 받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행실이 나쁘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하느님께서 이미 자기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한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어 부질없는 고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크게 용서를 받았기에 크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보였기에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너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하십니다. 나약한 인성으로 쉽게 죄에 떨어지는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같은 잘못을 거듭 거듭 범하는 우리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때 주님은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참된 사랑을 하게 됨을 기억합시다.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라느니 20여년만의 부활이라고 떠들썩하게 실시했던 청문회및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들어 고발한 사건들이 검찰의 수사결과 모조리 무혐의나 기소중지 또는 불구속기소 등으로 마무리 됐다는 밀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기간동안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밤을 지새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하느라고 밤을 밝혔다.

그리고 통쾌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박수를 보냈고, 증인들의 뻔뻔스러움에 분노했다.

그런데 80년 공무원 대량수청 사건관련의 김만기 전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나 수입소 매장사건의 박종문 전 농림수산장관,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의 김수현경감과 윤재호총경, 언론인 해직및 언론통폐합 관련 허문도, 이상재씨가 위증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된 것이다.

국회가 잘못된 판단과 충분한 준비없이 증인의 답변태도를 문제삼거나 심증만으로 위증고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못 면하게 됐지만 검찰이 진상을 규정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5공청산, 광주문제 해결 등 국회가 풀어야할 일들이 많다.

국민들이 지켜볼 이들 일들을 국회고발이라는 우를 다시 범할 것인지.

특히 5공청산의 초점이 될 핵심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순정이 산책



가톨릭 라디오 방송안내

“문규현 신부 평양 방문에 관한 반응”

지난 6일 ‘문규현 신부 평양 방문’이라는 급보에 많은 사람들, 특히 그분이 속해있는 우리 전주교구 신자들은 커다란 충격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물론 문신부님 이전에도 많은 신부님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금번 문신부님 방문 역시, 전번 문 목사님이나 황철영씨의 방문과는 달리 영주권을 갖고 이루어진 방문이었기에 실정법에 저촉되는 방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은 도착 성명에서 “분단 세대으로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며 “언제까지나 소망의 외침, 민족의 절규만으로 그칠 수 없기에 평양을 방문하며 통일을 향한 민족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불타는 이 마음을 김일성 주석에게 전하고 싶어 왔다”라고 그분의 방문 목적을 밝히므로 정부 당국이나 언론, 교회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반응 역시 구구각색이다. 한겨레 신문은 6월9일자 사설을 통해 지난 6일 임진각에서 뜻있는 신부들의 모임인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이 가진 「통일 염원 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전략)**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래 통일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 들고 있는 극우세력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유신독재정권 시대부터 민주화운동에 열성적으로 동참해온 천주교 사제단이 이제 통일운동의 깃발까지 높이 치켜든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중략)**”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서 표현된 강력한 통일 의지는 천주교 사제들의 호응으로 더욱 열기를 뽐고 있다. 통일을 향해 개신교와 천주교가 ‘일치’를 이룬 것을 거울삼아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언론도 있다. 6월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략)**…그러나 아무리 통일이 시급한 문제요, 6천만 민족의 비원의 소망일지라도 통일에 대한 방북은 온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이용당하거나 야합하는 행위는 평화통일의 전제인 남북대화자체를 지연시킬뿐 아니라 국민적 통일 의지를 오도함으로써 민족사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중략) 금번 문신부의 방북은 일부 재야나 운동권의 환상적 통일론을 부추기고 북한의 통일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뿐 온국민들의 애타는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측 반응 역시 각각이다. 지난 6월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에 소속된 일부 신부님들과 5개 단체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략)** 7.4공동성명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원칙 이행을 촉구하고 이의 실제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통일논의 과정에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에 의하여 독점된 통일논의는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은 이것이 한낱 기우가 아님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략)**”

6월5일 ‘문규현 신부의 평양방문은 지금까지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을 실천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높이 평가하며, 같은 전주교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지지해 보낸다.’ **(중략)**

그러자 6월11일자 가톨릭 신문은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아파스는 6월7일 문신부의 방북과 관련, ‘통일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가상하나 교회 장상과 사제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교회 정신에도 위배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동호 아파스는 이번 주말 평양교구장서리인 김수환추기경과 만나 문신부의 이번 방북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향후 통일사목방향에 대한 골격과 기준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교단」이나 「교구 사제단」 「정의 평화위원회」 또는 책임있는 교회 기관으로 부터의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신문사 방송국으로부터 “금번 문신부님 평양 방문에 대한 교회측 입장은 어떠십니까?”하는 문의전화와 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생각의 예는 아무런 답변을 줄 수 없는 실정이다. 아마 후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이전 개원
김안과의원
●부설: 국제콘택트렌즈 ●신세계이력
이전장소: 전주시 서노송동 636-5
(중앙성당 옆 구 박승환신부인파)
☎ (0652) 74-0760
85-3020
김안과  중앙성당

맥코이 이온정수기 (보건사회부 허가 제210호)
— 수도직결 순간 이온정수기 —
“맥코이 이온정수기가 만든 알카리성 칼슘 이온수는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 의료효과가 있는 물”
KBS-2TV: 월~금요일 아침8시30분 생방송(전국은 지금)에 TV광고 중
(주) 모리아크리스탈전북사업본부 사업본부장 서동주(스페노)
전주시 금암1동 706-4(합동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2층)
☎ (0652) 75-1654, 77-4312
※ 교우성당 및 문외환에 환영 ※ 직원모집: 남녀 부녀사원 계속모집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문대·제구장
김의사·탁상·합본대
출력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옥봉)
한 안 나(은순)
전주 ☎ 77-1747



성서와 함께

49. 구약의 형성(A) : 모세오경의 명칭

구약성서 각 권의 저자들 중 아무도 한 자리에 앉아 일관성 있게 기획된 책을 출간시키지 않았다. 각 권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여러 사람들의 붓을 필요로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구약성서의 책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집필되었다고 말하기보다,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와 더불어 자라왔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제2 경전을 제외한 구약성서를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에 따라 세 부분, 곧 율법, 예언서, 성문서집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형성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1. 율 법 (모세오경)

유대교에서는 구약성서의 처음 다섯 권의 책들, 구체적으로 지칭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율법)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다섯 권의 책들이 각종 법령, 시행세칙, 선조들의 가르침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다섯 권의 책을 구약의 다른 책들에 비해 훨씬 더 성스러운 문헌으로 받들고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다른 한편 이 토라를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오경이라는 이름은 "다섯 권"이라는 희랍어 단어에서 유래한다. 이 다섯 권의 책은 바빌론 귀양 이후에 모세의 저서로 간주되었고 이 전통이 그리스도교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으로 굳혀졌다.

그러나 율법 또는 모세오경이 구약의 다른 책들에 비해 내용면에 있어서 특별나게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경 역시 다른 책들처럼 신화와 전설, 전투의 노래 등 덜 성스러운 문학 양식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서의 문학 비평가들은 오경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기도 오경에 비해 내용면에 있어서 뒤떨어지거나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전자를 포함시켜 "육경"이라는 명칭을 주창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오경 가운데 신명기가 다른 네 권의 책들과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지닌 점에 착안하여, 신명기를 오경에서 제외시킨 "사경"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기도 한다.

요심이 (828) 김병오



유아교사 채용

- 자 격 : 자격증 소지한 미혼여성
- 서 류 : 자격증 사본, 이력서 (사진첨부)
- 기 간 : 6월 20일 까지
- 연락처 : 전주 72-9383 (오후 2시 ~ 5시 사이)

등본의 의원 (전)

진료과목 : 한방내과 · 부인과 · 소아과
 침구과 · 한방요법실
 이리시 중영동 3가 26-4 ☎ 52-4666
 원장 김 경환 (파비아노)

이준호피아노음악학원

●성악 입시생 지도
 ☎ 75-1812
 송천동 호반촌 비사벌 아파트상가 301호
 ※ 버스운행
 원장 이 준호 (안드레이)

교 구 소 식

1. 재성심의회 : 6월20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교구청회의실
2. 교구출인강좌 : 6월25일(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3. 초등부 하계연수 : 89.6.26-29일(3박4일) 장소-송광제2야영장 대상-초등부 교리교사 내용-하계교리연수 제3차 교재연수(가톨릭교리 신학원) 대집단 레크레이션, 소창 참가비-공문참조
4. 중·고등부 하계연수 : 89.6.30-7.3(3박4일) 장소-송광 제2야영장 대상-중·고 교리교사 및 캠프봉사자 내용-캠프실기(교구프로그램제시), 레크레이션, 하계교리연수, 제3차 교재연수(부산교구 발행 학생교리) *참가비-공문참조
5. 가리마스 수녀회 성소자 모임 : 6월25일(내제주일) 오후1시30분~5시30분 장소-전주덕진천주교회(진복유치원) 준비물-필기도구, 성가집 전화 : 72-1222(덕진수녀원)
6. 사제어머니회 모임 : 6월20일 진안천주교회 20일 9시까지 중앙성당에 모여주세요.
7. 축 / 황등성당 사제관 축성식 : 6월 18일 10시
8. 축 영명 / : 21일(성 알로이시오) 이태주 신부, 24일(성요한세자)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안, 양석현 신부님 축하합니다.
9. 김진룡 신부님 출국 : 6월 13일 스위스 유학차 떠나셨습니다. 많은 기도바랍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윤경 (유리엔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영동 3가 7-1
 ☎ 3-2496·2-8653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사랑의 술 (酒)
 좋아서 한잔 / 싫어서 한잔 /
 그러나 의미있는 한잔을 권합니다. 금번 농촌을 위한 원평성당
 성모(무료) 유치원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잔치"를 다음과 같
 이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와 주세요.
 일시 : 1989년 7월 7일(금)~9일(일)
 장소 : 카이저호프 (전주 : 한성여관 사거리)
 본호프 (군산 : 시청 사거리) 카이저호프 (이리 : 이리역 앞)
 주관 : 원평성당 사목회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황 인 규
 수녀원 5-1714 보좌신부 최 용 옥
 유치원 77-1712 사목회장 황 의 옥
 사무실 77-1711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1. 성서강좌: 매주(토) 오후 8시 강당 신약편 보좌신부님
2. 대건회원모집: 30-49세 남성, 사무실 접수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3. 성가연습: 미사시간 10분전에 성가연습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모임: 하늘의 문 꾸리아-오늘, 오후 2시 계속행회-다음주일 오후 2시 애령회-다음주일 오후 2시
5. 공식미사: 다음주일, 오후 4시 30분
6. 반모임: 반모임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어린이교리교육: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교리교육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1,324,750원 ☐ 교무금: 963,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사목회장 소 완 영
 수녀원 76-0961

1. 꾸리아회의: 오늘 오후 2시
 2. 금성회: 공식미사후
 3. 금오회: 공식미사후
 4. 금암회: 차주공식미사후
 5. 안나회·모니카회: 23일 오전 10시
 6. 예비자집중교리: 19, 20, 21, 23, 26, 27, 28, 30일 저녁 8시
 7. 금주전례: 해설-신동철 독서①설동규 ②김중애
 봉헌-이창성부부 기도-46반, 47반, 48반 복사-이대용 김인선
 8. 차주전례: 해설-심상기 독서①김인선 ②고영주
 봉헌-정두희부부 기도-49반, 50반, 51반 복사-이창성 권홍주
 9. 미사안내: 사도의 모후Pr, 차주-그리스도모친Pr.
- ☐ 지난주봉헌금: 일반 758,680원 초·중·고 55,220원 합계 813,900원 ☐ 교무금: 438,5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 상 열
 수·유 72-1222

1. 섬모회: 공식미사후(2층회의실)
 2. 병자봉성체: 21일(수) 오후 2시부터 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세요.
 3. 고백성사: 24일(토) 저녁미사후(손님 신부님)
 4. 빈병을 수집합니다: 빈첸시오회, 각 반의 반모임이나 사무실에 가져다 주세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5. 본당신축공사현금 납부에 정성을 모읍시다.
 6. 금주전례: 해설-김후만 복사·독서-교육분과
 기도-덕진9반
 차주전례: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사목회
 기도-덕진10반
 7. 신축현금 신입액: 129, 125, 000원
 8. 금주본당청소: 중거자의 모후Pr-24일 오후 2시
 9. 레지오 옥외행사 연기: 7월 1일
- ☐ 지난주봉헌금: 902,660원
 ☐ 성전신축2차현금: 691,280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1. 첫영성체교리: 20-23일 오후 4시 첫영성체-25일 공식미사중
 2.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구역장회의 24일-에스텔회 차주공식미사후-애령회, 사랑의 자모회, 청년회
 3. 전신자 전례교육(영화상영): 28일(수) 저녁미사후
 4. 구역미사(20일): 동산3구역
 5. 나눔잔치(21일): 원반회
 6. 구역모임(23일): 나반-동산4·8, 동산6, 동산7, 팔복2·4, 팔복5, 농원, 원동, 성덕
 7. 금주청소: 바다의 별Pr, 차주-매괴의 모후Pr.
 8. 금주전례: 해설-김택천 독서①박병의 ②오영실
 차주전례: 해설-손태규 독서①육분용 ②이정옥
- ☐ 지난주봉헌금: 335,000원 ☐ 교무금: 339,080원
 ☐ 수요현금: 21,14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열

1. 벽돌헌금및 폐품수집: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2.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3. 파티마의 성모 순례: 신청자 접수바람 다음 순례의 집-양영아 씨 6월 22일
 4. 금주모임: 꾸리아-공식미사후 차주모임-방주회-공식미사후 금주본당청소: 사랑하을 모후 차주-인자하신 어머니 금주미사안내: 인자하신 어머니 차주-자비의 모후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①최현재 ②김성자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①송종희 ②김옥희
- ☐ 지난주봉헌금: 330,880원 ☐ 교무금: 44,000원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 병 열
 수녀원 4-1142

1. 꾸리아월례회: 공식미사후
 2. 구역장·반장피정: 20일 천호피정의 집 8시 30분출발
 3. 유아세례: 24일 오후 6시
 4. 첫영성체교리: 20일부터
 5. 오늘은 교무금 봉헌주일입니다.(매월 셋째주)
 6. 신협가입안내: 가입금 1천원 설립기금 1천원 이상(도장지참)
 7. 금주본당청소: 송천7구역 24일 오전 10시
 8. 금주전례: 해설-박세영 독서·복사-이길호 김대준
 기도·봉헌-그리스도모친Pr
 차주전례: 해설-김혜숙 독서·복사-김은식 송기성
 기도·봉헌-자비의 모후Pr
- ☐ 지난주봉헌금: 444,850원 ☐ 교무금: 256,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 규 철
 수녀원 3-9567

1. 오늘 전신자 성지순례와 사랑 나들이 관계로 본당에는 아침 6시 미사만 있음. 형제·자매님께 뜻깊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 금주 수녀님 가정방문: 동양APT-21일 진북2동3구-22일 11구-23일 *본당에 사진안내신 가정은 수녀님방문때 사진을 내주세요.
 3. 병자방문: 24일(토) 오후 4시반 *가정에 환자가 있으시면 봉성체 할 수 있도록 본당 사무실로 미리 연락해 주세요.
 4. 유아세례: 24일(토) 오후 5시반 *이탈에도 세례받을 아이 있으신 가정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5. 다음주일 모임: 꾸리아, 요한회, 12사도회, 청년회
 6. 금주본당청소: 화-평화의 모후 토-인자하신 모후
 7. 미사안내: 바다의 별 8. 미사해설: 최중수
 9. 금주전례: 독서·기도-윤영원 오숙구 봉헌·기도-고영선 송춘섭
 차주전례: 독서·기도-점이봉 박준근 봉헌·기도-김영일 장형순
- ☐ 지난주봉헌금: 400,570원 ☐ 교무금: 660,50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1. 안나회: 18일 공식미사후
 2. 영세식: 18일 오후 2시
 3. 자모회 단합대회: 19일 오전 9시출발
 4. 유아세례: 25일 저녁 7시 사무실로 신청바람 6시 30분까지
 5. 미사때 매일미사책과 성가집을 지참하세요.
 6. 금주간모임: 자모회 원례회의 22일(목) 어머니미사후
 7. 이사오신분 집축성미사 신청은 본당 신부님께 신청하세요.
 8. 애령회모임: 20일(화) 저녁미사후
 9. 자녀신앙 교육은 부모님의 많은 협조에 있습니다: 중학생교리 주일 8시미사후 주일학교 주일 오후 3시교리 4시미사
 10. 다음주 모임: 꾸리아 월례회의
- ☐ 지난주봉헌금: 847,860원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현금: 405,23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